

본 작품은

2020년도 번역아카데미 특별과정 단기실습 프로그램 샘플번역을 위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 발췌되었습니다.

이 작품의 저작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0. 강화길 님

불법 유통 및 복제를 엄격히 금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7. 7.



한국문학번역원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 2020년도 번역아카데미 특별과정 필기시험 문제지(단기실습)

그날 밤, 나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가 나를 버려줬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가. 그래, 나는 가지 말라고 말했고, 그는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대꾸했다. 그때 나는 청소를 하고 있었다. 청소기를 붙든 채 그에게 부탁했다. “이것만 마무리하고 같이 나가자.” 그가 뭐라고 대답했던가. 기억나지 않는다.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느닷없이 나를 데리고 나가겠느냐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말없이 핸드폰만 쳐다보며 고개를 가로저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그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던 모습만 분명하게 기억난다. 나는 길고 묵직한 다이슨 청소기를 질질 끌며 그를 향해 걸었다. 그러나 문은 눈앞에서 쿵 하고 닫혔다. 그날 밤 그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대로 밤을 새웠다. 다이슨 청소기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내 마음에 큰 구멍이 뚫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 안으로 나의 많은 시간들이 빨려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깨달았다. 사실 그에게 인정받고 싶었다는 것을. 그가 나를 사랑해서,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싶었다는 것을. 결국 그런 것이다. 나를 지배하는 너를 바라보는 일은, 그 일을 계속 괜찮다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결국 너의 동의와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고개를 들었는데 해가 떠오르듯 눈앞에 해태가 나타났다.

그래. 해태.

해태는 현관 옆 자개 장식장의 문양이었다. 앤티크 스타일에서 간신히 찾아냈다면 그가 애지중지하는 물건이었다. 손님들이 올 때마다 그는 해태 장식장을 자랑했다. 얼마나 귀한 물건인지, 얼마나 조심스레 다루고 있는지. 그러나 장식장을 매일 깨끗이 닦는 사람은 나였다!

나는 일어났다. 그리고 청소기를 들고 해태를 향해 달려갔다. 망설이지 않았다.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었다. 나는 청소기로 자개 장식장을 내리쳤다. 영물의 얼굴을 내리치고, 또 내리쳤다.

(잠깐, 나 이 대본을 어디선가 봤던 것 같은데?)

그 순간, 누군가가 내 팔목을 잡았다. 그였다.

“야! 너 미쳤어?”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에는 취기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대로였다. 부드러운 눈썹, 가느다란 콧날, 도톰한 입술, 모두가 사랑하는 다정한 얼굴. 이 잘생긴 새끼.

나는 이를 악물고 청소기를 짹 붙들었다. 그리고 체중을 실어 그를 힘껏 밀어냈다. 역부족이었다. 그는 미동도 없었다. 나는 고개를 쳐들고 그를 노려봤다. 그가 나를 내려다보며 피식 웃었다. 그 순간 나는 청소기를 확 놓아버렸다.

강화길 , 「오물자의 출현」